

스키장 부상 응급처치 119

2000시즌 대비 2001시즌의 스키장 사고가 2배 증가했다.
스키로 인한 사고보다는 적절히 대응 못해 더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이 최근 2년 간 발생한 스키장내 사고 133건을 분석한 결과 3주 이상 치료한 중상 사고가 전체의 33.8%인 45건에 이르렀으며, 또 1주이상~3주미만 23.3%(31건), 1주미만 14.3%(19건), 치료기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8.6%(38건) 등이었다. 사고 원인으로서는 무리한 주행 등 본인 부주의(32.1%)보다 안전시설 미비 등 스키장의 잘못(33.3%)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스키장 사고는 2000시즌(99년 11월~2000년 4월) 43건에서 2001시즌(2000년 11월~2001년 4월) 90건으로 2배가 늘었다.

이렇게 증가하는 스키장 사고 중에 스키로 인한 부상은 사고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더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주로 골절, 염좌, 탈구 등이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한 응급조치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골절 (뼈가 부러지는 것)


부목을 대어 골절부위를 고정, 더 이상의 손상과 통증을 막는다. 부목은 골절 주위 위·아래의 관절을 포함해 고정하고, 고정시키는 붕대는 느슨하지도 뻑뻑하지도 않게 부목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한다. 부목으로 고정하지 않으면 골절 끝 부분이 혈관이나 신경을 다치게 하거나 다소 연결되어 있는 골절을 더욱 악화시켜 완전 골절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픈 부분을 움직이게 되면 격렬한 고통 때문에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다. 부목의 재료로는 주변에 있는 긴 막대기라면 무엇이든 좋고 나무판, 신문지, 잡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부목과 부상 부위 사이에 천이나 수건을 대어 충격을 완화한다.

염좌 (관절사이 인대가 외부 충격으로 이완 혹은 위축된 것, 흔히 삐었다고 함.)

발목관절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즉시 얼음찜질을 하고 석고붕대로 고정하여 통증과 부종을 치료한다. 얼음찜질을 해주면 부기가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약화된다. 이때 얼음찜질을 하면 동맥을 확장시켜 이미 부종이 생긴 부위에 더 많은 양의 혈액이 흐르게 되어 좋지않다. 이후 반드시 X-ray촬영을 통해 정밀진단을 받도록한다.

탈구 (관절을 구성하는 위·아래 뼈가 어긋난 상태)

어깨관절의 탈구가 가장 흔한데 즉시 견관절 도수정복을 하고 붕대로 고정하여 재탈구를 방지한다. (도수정복 : 잡아당겨 뼈를 제 위치로 맞추어 주는 것)

또한 머리, 목, 척추 손상환자는 잘못 움직여 등골이 손상되면 사지마비나 하반신마비 등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전문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된다. 또한 골절상을 입은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이 필요하므로 먹을 것을 주지 않도록 한다. 

한경호 (한마음의원장 935-7582)